

미국 정부 5·18 기밀문서 공개한 팀 서록, 광주 온다

2017년 인연...내달 21일 재방문
‘체로키 문서’ 등 진상규명 도움
“국방성 기록물 등 원본 확보돼야”

미국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기밀 문서를 공개해 진상규명의 결정적 역할을 한 저널리스트 팀 서록(73)이 6년 만에 광주를 다시 찾는다.
당시 팀 서록이 공개한 문건에는 미국이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개입설 등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5·18 관련 미국 측 기록물이 향후 진상조사 작업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문서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6일 지역 5·18 학계와 기록관 등에 따르면 미국 언론인 팀 서록은 지난 2017년 광주를 방문한 이후 6년여만에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에 머물 예정이다.
5·18 관련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사를 써 온 그는 ‘체로키 문서’와 ‘미국 국방정보국(DIA) 생산 문서’ 등 59개 기밀문서(3,530쪽 분량)를 확보·공개, 2017년 광주에 방문해 이를 기증하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광주를 방문했던 팀 서록은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결과 설

명회’를 개최했다. 그가 확보·공개한 문건에는 5·18 당시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 을 폭도로 왜곡해 미국의 지지를 받아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정황 등이 들어있다.
1980년 5월 27일 작성한 미국 국방부 정보보고서에는 ‘군중들이 쇠파이프·몽둥이를 들고 각 집을 돌며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폭도들이 초등학교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강제로 차에 태워 길거리로 끌고 나왔다’고 서술돼 있다.
서록은 설명회에서 “이것은 신군부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를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으로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다고 왜곡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또 실제 상황과 달리 광주 5·18을 마치 공산

주의자들의 폭동인 것처럼 몰고간 문서가 미국이 ‘광주 시위를 즉각 소탕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신군부의 거짓 정보 외에도 상세한 전두환 신군부 내부 상황, 시민군의 동향 등 광주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광주 항쟁이 한국의 국내 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결론 지었다고 서록은 분석했다.
결국 미국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회의에서 광주 항쟁을 끝내기 위해 군부대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문서에는 대부분 이 틈과 신상정보 등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어 미국의 군사개입 정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미국의 정보공개법으로 인해 진상규명이

자연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3급 비밀 5년, 2급 비밀 15년, 1급 비밀은 30년이 지나면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팀 서록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5·18 전후 기록물에 대한 관심 재고와 확보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팀 서록의 5·18 기밀문서 공개 등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당시 군부대가 한미연합사였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관여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제외된 부분이 없는 공개 기록물들의 원본 파일과 미 국방성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진상규명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미얀마 광주연대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등 광주지역 시민 단체들이 미얀마 국군의날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 버스 터미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탄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미얀마 민주화·러시아 전쟁범죄 중단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러시아의 전쟁 범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얀마의 봄 청년회, 미얀마 광주연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등 시민단체는 미얀마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공동 선전전을 열

었다. 이번 선전전은 지난 2021년 국군의 날에 미얀마 군부가 일반 시민과 반군부 저항 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유혈 강경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희생된 시민들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체는 “국제사회의 합의 권고에도 미얀마 군부의 광범위한 권력 남용과 잔학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미얀마 군부는 군사쿠데타와

자국민 학살,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는 전쟁범죄와 잔학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전쟁의 혼란을 틈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이주시킨 뒤 양육권 요청 동의서에서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국제 인도법을 어긴 전쟁 범죄”라며 “전쟁 범죄자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이는 참상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술김에 흥기 위협...해군 부서관 숨져

주말 광주·전남 사건·사고 열풍

주말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6일 광주소방본부와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대원 37명을 투입, 화재 발생 1시간15분 만인 오후 8시 28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75㎡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76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현장에 있었던 인근 주민 60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추워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낙상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38분께 동구 무등산 지산유원지에서 B씨(70·여)가 넘어져 심하게 다쳤

다. B씨는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에 탑승해 팔각정 인근에서 내린 후 낙상 사고를 당해, 안면부 열상 등 상처를 입었다.
신고받은 119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응급조치한 후 B씨를 헬기로 이송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오께 신안군 흑산면 여객선 터미널 인근 해상에서는 해군 간부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익수자는 미귀가 신고된 해군 부서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군은 C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손님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식당 주인 D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D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께 자신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E씨와 시비 끝에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휘두른 흥기에 E씨는 가슴 부위를 베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43주년 5·18 행사, 준비 본격화

43주년을맞는5·18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 행사가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6일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행사위는 광주시 예산 8억 3,000만원을 지원 받고, 오는 5월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전야제와 부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5·18의 정신을 예술로 표현한 문학제, 미술제, 연극마당도 준비되고 있다. /민찬기 기자

여보야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다าวน์โหลด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다운로드 ONE store